



제6차 회의록

회의날짜	@10/09/2024
Tags	전체
작성자	박소희 박지현

참석

소희, 지현, 채현, 준하

회의 안건

☒ 제안서 발표자료 내용 정하기



회의 내용

발표 자료 내용

표지 - 프로젝트명...!

목차

- 개요
- 문제 정의1 - 음식물 폐기물 심각성
- 문제 정의2 - 푸드업사이클링/ 어글리어스, 밤의 빵집
- 사용자 분석 - 인터뷰 내용
- 사례 분석1 - 리베이크
- 사례 분석2 - 투곳투고
- 프로젝트 목표, 솔루션
- 사용자 플로우 (IA) - 기능

- 시퀀스 다이어그램
- 와이어프레임(최종 결과물)
- 사용 도구, 사용 기술/ 나열
- 기대효과 - 키워드만!
- 간트 차트

Q&A

사용자 인터뷰

- 유통기한 임박된 식품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통기한 임박 식품은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당일 소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중독 위험이나 폐기 식품을 나눠준다는 정서상인 이유 때문에 자체 폐기하는 편입니다.
'푸드뱅크'라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 기부 단체가 있지만, 즉석제조식품을 다루는 개인매장은 유통기한 표시 등의 문제 때문에 기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비용에 대한 의견
만약 '푸드뱅크'에 기부한다면 세제 혜택이 있지만 자체 폐기 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과 같게 처리합니다.
-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부의 경우, 만약 기부한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는 기부한 업장에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 관련은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당연하지만 선의로 하는 기부인데 그 책임을 업장에만 지우는건 기부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뱅크'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매장도 있겠지만, 개인이 직접 기부처를 찾아나서야합니다.
기관(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기부가 필요한 곳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기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솔루션

프로젝트 목표: 남은 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고 찾아가는 동네 기반 서비스 개발

솔루션 (핵심 기능)

- 카테고리별 동네 가게 검색하기
- 지도로 동네 가게 탐색하기

- 게시물 작성 및 예약하기
- 관심 가게 모아보기

사용 도구, 사용 기술, 서버 아키텍처 예시)

공지사항

프로젝트 명 최종 정하기

▼ 아이디어

소소하게 (지역 소상공인+지역 소비자), 새싹 이미지

푸드워리어 (버려질 위기에 처한 음식을 구한다!), 푸파 아니고 푸리어

수행 계획서 최종 발표(10/16일)

- 발표자료 양식 : 파워포인트 양식
- 발표자료 제출 기한 : 10/15일한 (GitHub 팀별 Repository의 Doc 폴더에 제출)
- 팀별 발표 할당 시간 : 12분 (발표 : 8분, 질의응답: 4분)
- 발표자 선정 : 팀원 모두 발표
- 최종 발표는 평가를 통해 성적에 반영 예정임

다음 회의

2024.10.14 (월) 강의 시간